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전 주 람(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김 순 옥(성균관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실천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소재 두 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339명이며, 측정 도구는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박영애(1995), 아동의 애착안정성은 옥정(1998),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은 정인선(2006)의 도구를 수정 및 문항 축소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두 아동 자기 보고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14.0을 통해 기술통계, t-검증, F-검증, 상관관계 및 단계적중다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모애착안정성과는 보통 수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아동의 공격성과는 보통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아동의 모애착안정성과 공격성간에는 상당히 낮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 부모 및 가족의 인구사회학적변인과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모애착안정성을 투입하여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본 결과,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며 다음으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별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이 아동의 반응적·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연구들과는 달리 세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여러 가지 변인들 중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모애착안정성 및 공격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었으며 다음으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었다. 아동의 모애착안정성은 아동의 반응적·주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음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시정과 올바른 양육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